

**지난 2016년 10월 11일 255개 기관과 피해아동청소년 2인이
함께 채팅 어플리케이션 운영자 공동고소고발한 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 통지 받았습니다.**

2017년 11월 3일(금), 본 센터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 알선, 조장하는 7개 어플리케이션 4명의 운영자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통지를 받았습니다. 증거 제출과 철저한 수사 요청 등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수사기관은 채팅 어플리케이션 운영자들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성매매를 알선·유인·조장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 운영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셈입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로 유인되고 알선될지 상상할수록 그 결과가 끔찍합니다. 이에 본 센터와 고소대리인들은 이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에 항고하여 법리적으로 하나하나 다뤄나갈 계획입니다.

아래 표는 그동안의 경과입니다.

날짜	경과	세부내용
2016년 10월 11일	기자회견 및 고소고발장 제출	· 기자회견(한국YWCA연합회 강당) 고소고발 취지 및 고소고발장 내용, 향후 계획 등 (고소인 2인과 255개 단체 공동고발) · 공동 고소고발장 제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년 12월 9일	대표고발인 초동조사 출석	·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담당자: ■■■■■ 수사관) · 고소고발 취지 및 고발 내용 진술, 추가 증거자료 제출 · 피고발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 요청
2017년 2월	담당 수사관 변동	· 인사 발령으로 인한 수사관 변동 (■■■■■ 수사관 → ■■■■■ 수사관)
2017년 3월	각하 예정 통보	· 수사 진행 상황 모니터링을 위해 유선으로 문의하자 처벌조항이 없음으로 인해 각하 처리될 예정이고, 진행 사항을 설명해 줄테니 방문하라는 통보를 받음. (담당: ■■■■■ 검사)
2017년 4월 7일	경찰청 재방문	·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질의

	(재수사 및 각하 지연 요청)	한 결과 현재로서는 피고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각하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함. · 피고발인들을 특정할 수 없어 수사를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함. · 본 센터에서 피고발인 정보(대표자 이름 및 주소)를 제출하며 재수사를 요청함. 방문 후 당일에 피고발인 1인에 대한 법인등기 부도 추가 제출함.
2017년 7월 24일	경찰청 재방문 (불기소 의견 송치 예정 통보)	· 피고발인 조사 후,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고 수사 결과 설명을 듣기 위해 재방문함. · 피고발인 조사 결과 7개의 어플리케이션 운영자는 4명이었음. 1:1 채팅방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상황에 운영자가 가담한 것이 아니고,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는 결론이었음. 또한 조사를 받은 피고발인들은 어플리케이션 내 금지어를 설정하여 자체 검열하고 있으며 어플리케이션 운영으로 인한 수익도 크지 않다고 진술했다고 함.
2017년 8월 18일	검사실 변동	· ■■■■■ 검사실에서 ■■■■■ 검사실로 변동됨.
2017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처분	· 4명 피고발인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판결
2017년 11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통지	·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통지를 우편으로 수령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 알선, 조장하는 어플리케이션 운영자 공동고발 255개 단체와 관심 가져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해당 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의 통지를 받은 상황이지만, 고소·고발장 제출 이후 여러 언론매체에서 관련 기사와 보도를 통해 채팅 어플리케이션 운영자 처벌과 규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 2017년 5월 3일 헤럴드경제 ■■■■■ 기자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503000031>

– 2017년 9월 21일 머니투데이 ■■■■■ 기자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92011253224550&outlink=1&ref=http%3A%2F%2Fsearch.naver.com>

대표고발인인 본 센터에서는 해당 건에 이어 2017년 8월 또 다른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고발하였고 고발인 진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본 센터에서는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 알선, 조장하는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추가 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등 규제를 위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 의원실에서 발의될 예정입니다. 성착취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십 대 여 성 인 권 센 터